

# 한국의 홈스쿨링(Homeschooling)에 관한 탐색적 연구

김 현 주(인하대 석사) · 양 성 은(인하대 부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 및 자녀의 관점에서 공교육 대신 홈스쿨링을 실시하는 동기를 탐색하고, 홈스쿨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삶의 변화, 심리적 어려움과 대처전략, 홈스쿨링을 통해 얻는 보람 등을 심층적으로 고찰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준거적 선택방법 중 전형적 사례선택법에 따라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연구참여자 모집 준거는 홈스쿨링 경험이 2년 이상 된 가족으로서 어머니, 아버지, 자녀를 모두 면접에 참여시켰다. 최종 연구 참여가족은 총 20가족이며, 자료수집은 2010년 6월 29일부터 2010년 9월 14일까지 개별심층면접으로 실시되었고, 평균면접시간은 약 2시간이었다. 면접의 내용은 홈스쿨링을 시작하게 된 동기, 홈스쿨링의 적응과정, 홈스쿨링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대처방법, 홈스쿨링의 장점, 홈스쿨링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 홈스쿨링과 관련해 정부 및 사회에 바라는 점 등이었다. 자료분석은 Colazzi가 제시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6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절차의 타당화 검증을 위해 동료집단의 조언 및 지지, 예외적 사례분석, 감사자료 남기기, 반성적 일지쓰기를 수행하였다.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핵심주제(essence)는 “홈스쿨링은 단순한 교육방법이 아니라 삶의 양식(life style)”이라는 연구참여자들의 신념이다. 홈스쿨링 가족들은 교육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홈스쿨링을 선택하였지만, 결국 홈스쿨링이 가족의 가치, 위계, 규칙 등 생활 전체를 변화시키는 본질적인 삶의 양식으로 자리 잡게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 자녀의 특성, 부모의 신념 등 다양한 동기로 홈스쿨링을 선택하였다. 홈스쿨링 가족들은 “유별나다”고 보는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과 “경험하지 못한 길”을 부모와 자녀가 헤쳐 나가야 한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홈스쿨링을 통해 가족구성원 간의 공유 활동이 증가하면서 의사소통의 질이 향상되고, 가족응집성의 강화를 경험하면서 “참된 가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들은 학습에 대한 “주체 의식”을 갖으며, “자신이 원하는 공부”에 몰입하여 “스스로 해야 한다”는 자각을 보였다. 홈스쿨링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은 양가감정을 드러냈지만, 전반적으로 홈스쿨링의 법제화 및 학력인정을 요구하는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홈스쿨링에 대한 아동학적 고찰이 부재한 점에 주목하여, 가족의 홈스쿨링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 공헌점이 있다. 특히 가족구성원 전체를 연구에 참여시킴으로서 부모 및 자녀의 관점을 비교하고, 가족의 홈스쿨링 경험에 대한 통합적 결론을 도출한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의 홈스쿨링 가족을 위한 교육적 정책 및 지원이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